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미·일동맹의 강화

배 정 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2월 24일 오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아소 일본 총리와 가졌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미·일동맹의 강화 및 중시의 입장을 매우 단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일 및 오바마-아소 정상회담이 내포하고 있는 전략적 의미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I. 미국의 일본 중시와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 강화

1.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일과 전략적 의미

클린턴 국무장관의 주요 일정은 나카소네 외무장관과의 회담(2.17), 아소 총리 예방 및 회담(2.17), 오자와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2.17) 등이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2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미·일동맹은 미국 외교정책의 초석이자 오바마 정권의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였는데, 미·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1) 2월 24일 미·일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 (2) 일본의 ‘파키스탄 지원 국제회의’ 주최에 대한 미국의 지지 (3)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에 관한 협정 서명, (4)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미·일의 협력 강화 등이다.

상기 사항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의 상대를 일본 총리로 선택하여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가지게 된 것은 핵심 정책 현안인 (1) 경제위기 극복, (2)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해결 등에 일본의 협력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 증강으로 귀결될 것이다.

둘째, 파키스탄 지원을 위한 각료급 국제회의의 일본 주최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의 역할과 전략적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의 역할과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셋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에 관한 협정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명한 것은 일본 국내의 정치변화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2014년까지 계획을 완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아소 정권의 지지율이 10%대이다. 금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대등한 미·일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즉, 아소 내각과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 국내정치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괌 이전 문제를 완료하기 위해 협정을 조인한 것이다.

2. 아소 총리의 방미와 미·일정상회담의 전략적 의미

아소 총리의 미국 방문과 함께 오바마-아소 미·일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2월 24일 오전(현지시간)에 개최되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미·일동맹은 동아시아 안보의 초석’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바마-아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신뢰 유지, 보호주의 대두에 대한 공동 대응, 글로벌 규모의 정책과제 대응을 위한 미·일동맹의 강화,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후변동 및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협력 등에 관해 합의되었다.

이와 같은 미·일 정상회담은 아소 총리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날에 이루어졌다. 그것도 취임 후 첫 번째의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졌다.

미·일 정상회담의 전략적 의미 및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은 첫 번째의 정상회담 파트너로 일본 총리, 두 번째의 정상회담 파트너로 영국 총리를 초청하여 회담을 가졌다. 즉, 오바마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회담을 통하여 미국 세계전략의 양대 기축인 미·일동맹과 미·영동맹의 중시를 단적으로 나타내었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지지율 10%대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아소 총리와 첫 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미국으로서 그만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였기 때문이며, 오바마 행정부의 ‘일본 중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일본 국내정치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소 총리’ 보다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강조하고 부각시켰다. 아미티지 전 국무 부장관의 지적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일본 중시’ 메시지는 아소 총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 미국 국민, 아시아 각국 등을 향한 메시지이다.

II.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후, 미·일관계의 동향을 볼 때, 한국은 동북아 전략, 대미전략, 대북전략 등의 차원에서 미국의 일본 중시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 일본의 국내정치 상황과 미국의 일본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접근 등에 대해 전략적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1. 일본의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의 일본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접근

현재 일본 국내 정치상황을 살펴보면, 금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일본 정국을 예의 주시함과 더불어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도 민주당 지도부와의 상견례를 중시하여 두 번씩이나 회담을 제안하여 가까스로 오자와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그러므로, 한국도 의원외교, 민간 전문가 외교 등을 통하여 자민당뿐 아니라, 민주당, 공명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신뢰 깊은’ 채널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오바마 행정부의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역할 확대

오바마 행정부의 일본 중시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오바마-아소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듯이, 일본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주일미군의 재편을 통한 미·일동맹의 질적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신뢰 유지, 기후변동 및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협력,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협의의 개시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바마 시대의 미·일동맹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역할 확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오바마-아소 미·일 정상회담이후,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MD 긴급대처 요령'에 근거하여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동해에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미·일동맹의 전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요컨대,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도 한·일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이다.

